

[기획] >> 4면
무전공 입학 제도

[기획] >> 5면
천원의 아침밥

[사회] >> 8면
범람하는 외국어 간판

[인물] >> 12면
김선웅 작가

무전공 입학 제도의 이상과 현실,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교육부는 다음 해부터 무전공 입학을 실행하는 대학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역시 무전공 입학에 대한 검토가 논의 중이다. 무전공 입학에 대한 현실과 다양한 시선들 만나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자유술 기자 07yuso@hufs.ac.kr

우리학교, 동대문구와 전·월세 안전 계약 매뉴얼 및 세미나 개최

지난달 28일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302호에서 동대문구와 공동으로 전·월세 안전 계약 매뉴얼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상하반기 전·월세 안전 계약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함께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전·월세 안전 계약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여운'(이하 총학)과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의 협업으로 약 90분 동안 진행됐다. 최근 서울캠퍼스 주변에서 전·월세 계약 사기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계기로 두 기관이 손을 잡고 개최한 것이다. 사전에 구글 폼(Google Forms)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후 동대문구 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올버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교육은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할 내용을 비롯해 △임대차 관련 용어 △임대차 계약에서의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

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뤘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진행됐다. 최대한 많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또 총학은 전·월세 안전 계약 매뉴얼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개해 많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대문구에서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과 관련한 추가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7-41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2024학년도 입학식 개최해

지난달 29일 우리학교에선 2024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됐다. 입학식은 서울캠퍼스 오바마홀(Osama Hall)에서 오전 11시 및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Conference Hall)에서 오후 2시에 열렸다.

지난 1954년 설립되어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우리학교는 이번 해에 설립 2125명과 글캠 1,799명으로 총 신입생 3,924 명이 입학했다. 이번 입학식은 양 캠퍼스(이하 양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돼 △권오갑 HD현대 회장(서양어·포르투갈어 71) △김현우 SBS 앵커(일본·일본어 98) △유비 조나단(사회·정의 20) △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서양어·독일어 58) △이호덕 해외동문연합회 회장(아시아·마인어 70) △조현동 주 미국대사(서양어·스페인어 78) 등 여러 동문들과 7개국 주한대사의 신입생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어서 스키수단 및 내빈 입장 △국민의례스내빈소개스

입학자가 선언 △신입생 선서 △박정은 총장(이하 박 총장) 축하사양인집 총동문회장 축하사교가 제창이 진행됐다.

박 총장은 축하사를 통해 신입생의 입학에 축하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학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학생들에게는 △첫째로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학생 △셋째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찾고 구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학교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인류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며 "학생들이 꿈을 꾸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양캠엔 신입생뿐만 아니라 △가속 △지인 △재학생 선배 등이 모여 신입생들의 입학을 함께 축하했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



OUR SPORT IS BEAUTIFUL



우리학교 2024 중앙 새맞이행사 개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우리학교 제58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여운'과 제40대 설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포커스(FORCUS)'가 '2024 중앙 새맞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별도로 진행됐던 신입생환영회와 동아리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된 것으로 부스 운영과 무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체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설캠 잔디광장에 설치된 총학 중앙부스에선 스마트톡(SmartTok)△명함배경화면 및 굿노트(Good Note) 속지△복권스틱어△친환경 물병△키스킨(Keyboard Skin)으로 구성된 신입생 입학기념품이 배부됐다.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도 준비됐다. 신입생이 입학신고서를 작성해 부스에 제출하면 비행기 탑승권 컨셉의 표와 명찰을 지급하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응원하는 행사였다. 기념품은 전량 소진됐으며 신입생들이 자신이 받은 기념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증하는 등 열띤 참여가 돋보였다.

동아리박람회 부스는 캠퍼스 전역에 약 41개가 설치됐다. 부스별로 동아리 소개가 적힌 입간판과 작은 행사를 구성해 우리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홍보했다. △간이 사진관△우리학교 캐릭터인 부(BOO)의 대형 인형△스커피차푸드 트럭도 설치돼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초청가수 헤이즈(Heize)의 공연 모습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사 첫째 날 오후 5시부터는 운동장에서 신입생 환영 무대가 이어졌다. 무대 프로그램은 △동아리 공연△응원제△외대인 선포식△가수 헤이즈(Heize)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리 공연에선 총학 산하 특별기구인 문예갈래협의 회에 이어 △외인부대스롭스 도비(HUFS DOBY)△새물결△에프에이(F.A)△노래나래△아이기스(AEGIS)△제인(JANE)이 무대를 장식했다. 동아리 공연 이후엔 중앙동아리 아이기스와 외인부대가 함께 준비한 응원제를 통해 우리 학교 응원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 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학생회가 인사와 소개를 한 뒤 다함께 '나의 사랑 외대'를 제창하는 외대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무대의 마지막은 초청 가수 헤이즈가 장식했다.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뜨겁게 호응하고 공연을 즐기면서 애교심을 다질 수 있었던 행사였다.

총학과 함께 새맞이행사를 개최한 이예진(아시아·인도어 21) 우리학교 설캠 동연 회장은 "학우분들이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과 활기찬 우리학교 분위기를 보니 보람차고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 2024학년도 제14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해 현마육영재단 제14기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엔 이성의 현마육영재단 이사장(이하 이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정 재무·대외부총장△박정경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박정운 총장(이하 박 총장)△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장△이준섭 현마산업 대표이사△이지연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신규 선발 장학생 4인 △기존 장학생 8인△학부모들△홍성민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현마육영재단을 설립해 장학생을 선발한 것이다"며 장학생들에게 "△근검절약하는 사람△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자신을 한 권이라도 더 읽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파나소닉(Panasonic) 창업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움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삶을 바쳐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항상 건전한 삶을 살며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미래를 향해 정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15년 전 이사장님의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계획한 일을 마음으로 전달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의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나눔의 정신과 우리학



▲장학금 수여식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교의 장학정신을 모두 이어받은 현마의 장학생들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라며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학금 수여식 후에는 교수회관 귀빈식당에서 점심 만찬이 진행됐다. 해당

만찬에서 △재단 관계자들△학교 관계자들△장학생들△학부모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이 이사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현마육영재단과 이 이사장은 우리학교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마육영재단은 2010년 설립된 후 이번 학기까지 총 12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8억 3,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유능한 인재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그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호연지기를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무역 업체인 삼우무역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수입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64학번인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모교인 우리학교 경영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이후 2010년에는 현마육영재단을 설립하고 2011년 제1기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장학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백재승 우리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회장 선임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 (출처: 전략홍보팀)

백재승 우리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이하 백 교수)가 지난달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식 및 초대 세미나'에서 해당 학회의 초대 창립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경기 광명시갑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포함해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양정숙 개혁신당 비례대표△윤주경 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나재철 한국금융산학

학회 고문△박정운 우리학교 총장△백혜련 국회 정부위원장△오건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백 교수는 "한국금융산학학회는 진정한 의미의 산학 협력을 추구하고 △공기업 △금융기관△일반 기업의 금융 종사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학회"라며 "이를 통해 현장과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현실적인 도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은 모든 계층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모델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도전에 대한 산학협력으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해 이를 실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03년 우리학교 교수로 임용된 백 교수는 △금융시장론△외환시장의 이해△증권시장론 등 금융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경상대학 학장 및 국제사회교육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 양성사업단(GTEP) 단장을 맡고 있다. 2008년에 풀브라이트(Fulbright) 재단 중견연구자로 선정돼 미국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경영대학에서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

위원회△우정사업본부△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공항공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왔으며 공인회계사(KICPA) 시험 출제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금융시장의 이해△증권시장의 이해△외환시장의 이해 등이 있다.

한편 한국금융산학학회는 학문 지식과 현장 경험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당 학회는 산업계 여러 전·현직자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미래의 금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금융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전략홍보팀)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입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보낼 예정이다. 최 교수는 우리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Julius-Maximilians-Universität Würzburg)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7년부터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 기획조정처장과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학연

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감사원△국방부△국회△법제처△외교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한 최 교수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지원위원△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사위원△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서울대학교 재정경제위원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는 법의 균형과 법의 지도이며 공저 포함 총 1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 △입법 분야 △입법 대상△입법 과정△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뿐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해당 학회는 △국회△법원△법제처△중앙정부△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입법 분야에 대한 학문 및 실무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최 교수는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협력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기쁨 기자 08gippeum@hufs.ac.kr